

Hot

>> Hot Issue

IIC-China 2005를 가다

조범식_IT-SoC협회 마케팅지원팀 (bsj0@itsoc.or.kr)

임인영_IT-SoC협회 마케팅지원팀 (bei97@itsoc.or.kr)



최근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 Intex에서 지난 4월 12일~14일까지 3일간 International IC-China(IIC-China) 2005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IIC-China 2005는 IC 전문 전시회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 삼성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르네사스, 인피니온, 도시바, 프리스케일, 필립스 외에도 180여 개사가 참가하여 전시장을 찾은 중국 및 해외 참관객에게 세계 수준의 반도체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IIC-China 2005를 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핸드폰, PDA 등 휴대기기 관련 제품이 대세를 이뤄 전시되었으며, IT-SoC협회도 국내 10개 업체를 이끌고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삼성전자는 200만 및 13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 휴대폰용 QVGA급 TFT LCD 드라이버 IC 선보였으며, 인텔은 PDA, PMP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TI와 르네사스는 각각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인 오랩, SH모바일 등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시그마텔 등 중소 반도체 업체들 대부분도 MP3P 등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반도체로 제조업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4개월 간의 치밀한 준비 |

이번 IIC-China 2005 참가는 ICA에서 지원하는 2005년도 중소기업 IT 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IT-SoC협회의 주관 하에 4개월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뤄졌다. IT-SoC협회는 전담 테스트팀을 구성하여 사전 홍보에서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왔으며, 독특한 부스 디자인으로 유일한 국가관인 한국관을 12개 부스로 구성하여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함께 참가한 한국기업들의 전시효과를 높였다. 한편 전시기간 동안 유희준 정통부 IT SoC PM을 비롯 정보통신연구원과 SIPAC 관계자들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전시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함께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 언론의 관심 |

지역 언론은 물론 홍콩 이코노믹 저널, 전

자신문, EE TIMES 등 각 국 언론 매체들도 한국관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홍콩의 이코노믹 저널은 IT-SoC협회 황중범 사무총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MCS로직 MP3P 칩 공급 계약 등 성과 무성 |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국내 업체들은 737건의 상담과 수출 상담액 1,40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으며 전시기간 중 MCS로직을 비롯하여 총 25건, 2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거대 IT기업인 푸티엔 마오푸는 MP3P사업에 진출하면서 첫 번째 칩 공급 업체로 MCS로직을 선정했으며 올해 출시할 MP3P 모델 중 10여 종에 MCS로직의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거대한 중국의 시장성에 공감하면서 중

국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듯한 분위기였다.

| 전시회 이모저모 |

IT-SoC협회 부스의 미녀 도우미 3인방이 빼어난 외모와 능숙한 중국어 솜씨로 함께 간 한국업체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IT-SoC협회의 임인영 대리는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며 업체 관계자들의 불편한 언어소통과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신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등 그야말로 도우미의 역할을 해 많은 이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상해 Intex는 전문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시장치업체의 미숙함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전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 등에 있어 몇몇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여 참가업체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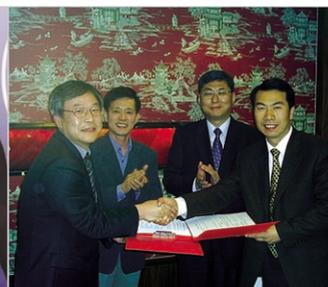
[한국관 부스전경]



[인터뷰중인 황중범 사무총장]



[MCS로직과 푸티엔의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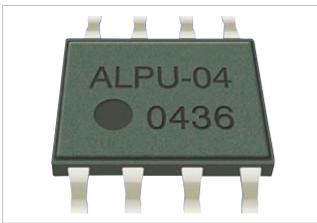


[한국관의 미녀 도우미 3인방]



한국관 둘러보기

(주)네오와인 www.neowine.co.kr



[ALPU]

15년의 기술과 노하우를 집적한 네오와인은 복제방지용 칩셋인 ALPU를 전시했다. 복제방지용 칩셋은 시스템복제 방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외주 양산 업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 칩을 내장 생산하고 이 칩이 없을 경우 동작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는 용도이다. 이전 IIC-China 참가에 대해 네오와인의 이효승 사장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중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터키 등 유럽 쪽 업체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와 많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 단계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의 대기업들과 접촉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네오와인은 우선 디스트리뷰터를 선정하여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차비를 서두르고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유럽 등 선진국 쪽으로도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네오와인은 향후 3~4년간은 해외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여 자사의 복제방지 기술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협회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주)다이나릿시스템 www.dynalith.com

2000년에 설립된 다이나릿시스템은 반도체 설계도구 개발회사로 이번 전시회에는 PCI 카드 형태의 로직 시뮬레이터 가속기인 iPROVE와 교육용 제품이 iTUTOR를 전시했다. 현재 중국의 SoC 설계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한 발 앞서 중국시장에 진출 하려는 다이나릿시스템의 행보는 의미가 있어 보였다. 이주학 부장은 "중국 현지의 디스트리뷰터를 찾는 것이 전시 참가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가능성 있는 업체를 2~3개 찾게 되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을 통해 중국 내 설계업체의 동향을 어느 정도 가능해 볼 수 있었다. 아직은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것 같아 교육용 툴인 iTUTOR쪽 마케팅의 중심을 둘

예정"이라고 하면서 향후 마케팅 방향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인도, 파키스탄, 홍콩 등에서 온 바이어들도 다이나릿시스템 부스에 들러 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다이나릿시스템은 세관에서 장비 일부를 압수 당해 보증금을 주고 장비를 되돌려 받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iPROVE]

(주)렛스비전 www.letsvision.com

JPEG, MPEG-4, H.264 등의 비디오 코덱과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설계 공급하는 SoC 전문기업인 렛스비전은 IIC-China 2005 참가를 통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디



[MEDEO1000TM]

뒀다. 현재 중국 휴대폰 시장이 기존 카메라 폰 위주에서 멀티미디어 폰으로 이동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휴대폰 업체들이 렛스비전의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MEDEO1000TM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만의 휴대폰 생산업체인 디비텔을 비롯 중국의 레노버, 기가텔레콤의 연구개발 부분을 인수한 중국계 미국기업인 유티스타컴 등과 칩공급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가기도 했다. 렛스비전의 심중석 이사는 "이들 업체들과 향후 개별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셀로코(주) www.seloco.com

PC 카메라 칩, 네트워크 카메라 모듈, EDA Tool을 전시한 셀로코는 1990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 진출하여 기술력을 인정 받은 기업이며, 이번 전시 참가를 시발로 중국 시장 진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PC 카메라 칩이나 네트워크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도어락



[PC 카메라 칩]



[네트워크 카메라 모듈]



[TCP/IP 인터넷 커넥션]

술대학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주)MCS로직 www.mcslogic.co.kr

디지털 오디오 칩과 음성재생용 칩,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MCS로직은 이번 전시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린 기업 중의 하나다. MP3용 오디오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MCS로직은 연매출 60조원 규모의 중국 거대 IT업체인 푸티엔 그룹과 칩공급 계약을 맺는 쾌거를 올렸다. 이외에도 많은 중국 시스템업체들이 MCS로직의 부스를 찾았으며, 주력 제품인 오디오 프로세서의 응용범위가 넓어 MP3뿐만 아니라 휴대폰 업계 쪽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MCS로직의 남상운 사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활발한 사전 작업들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출 계약은 물론 홍보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동안 중국 시장 진출이 미진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중



[디지털 오디오 IC - MCL3890]



[Voice Playback IC - MCL1043]

시스템업체나 감시카메라업체 등 보안 업체들이 가격을 묻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셀로코는 상품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술 개발 플랜을 제시하여 시장을 반응을 타진해 보기도 했다. 셀로코는 현재 중국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이 미비해서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접촉한 업체와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맺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리점을 통한 중국 시장의 확장을 시작으로 연변과학기술

국 시장에 대한 파악은 물론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주)위즈넷 www.wiznet.co.kr

위즈넷은 인터넷 전용 프로토콜인 TCP/IP를 하드웨어 칩으로 구현한 TCP/IPv4와 TCP/IPv6 제품군들을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위즈넷의 네트워크 칩은 인터넷으로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인터넷 서비스 단말기 등에 사용되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채택될 수 있어 시스템업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위즈넷은 중국 현지 디스트리뷰터들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Hardwired TCP/IP Chip_W3150]



[NM(Network Modules) & EG(Embedded Gateway Modules)]

(주)이노자인 www.innosign.co.kr

이노자인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타겟으로 수정발전기용 IC(TCXO IC), 수정제품, 3차원 그래픽 프로세서를 전시했다. 풍부한 기술 축적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30% 이상의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는 이노자인은 이번 전시회를 중국 업체들과의 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제품 홍보와 소개에 주력했다. 전시 제품들이 모바일용 부품들이나 까다로운 휴대폰업체와 통신업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crystal 업체쪽도 이노자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리점 계약을 맺고자 하는 에이전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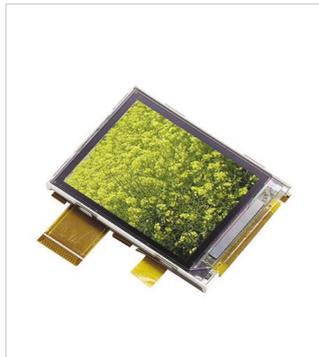
[TCXO IC]

(주)픽셀칩스 www.pixelchips.com

칩 메이커업체인 픽셀칩스는 모바일용 TFT LCD one-chip solution 3개종의 driver IC's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도 모델명 PXC3001S/3002S, PXC3007S 및 PXC3100 등 3개종의 기제품과 그래픽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사이드를 향상 시킨 신모델 PXC3107을 출품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픽셀칩스는 심천 지역에는 이미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시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IIC-China 참가로 상해 쪽의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 하는 모습이였다. 픽셀칩스의 안광수 사장은 다음 달 출시될 PXC3107를 기반으로 모듈업체와 에이전시 등을 통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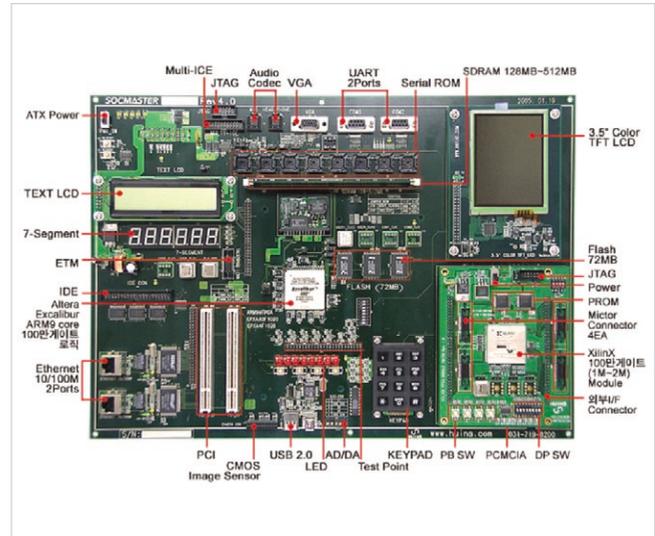
[PXC3002S]



[PXC3007S]

(주)휴인스 www.huins.com

2001년부터 SoC 플랫폼 및 FPGA 보드, 임베디드시스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를 해 오던 휴인스는 SoC 개발용 플랫폼인 SoCMaster를 전시했다. 회사 홍보는 물론 중국 쪽의 에이전트를 물색하여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의 초석을 닦는다는 목적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휴인스는 약 3개 정도의 업체와 에이전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인스의 실무담당자로 전시회에 참가했던 최석주 과장은 "7~8개 업체가 에이전시 계약을 하자는 요청을 해 왔으면 그 가운데서 적절한 업체를 선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무한한 중국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SoC Master™]

(주)펜타마이크로 www.pentamicro.com

DVR, PVR, 네트워크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영상 압축칩과 화질 개선용 칩 등 멀티미디어 칩셋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펜타마이크로는 멀티스트림 IV라는 모델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칩은 MPEG-4를 비롯 MPEG-1,2, H.264, JPEG 등 다양한 영상압축 표준방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채널별로 다른 표준 방식으로 동시에 압축 또는 복원 할 수 있다. 전시품이 영상 압축칩인 까닭에 보안 시장의 DVR업체들이 펜타마이크로의 부스를 많이 찾았으며 디스트리뷰터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주호 상무는 "현재 중국 쪽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펜타마이크로는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3~4개 업체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하



[PXC3007S]

면서, "국내, 대만, 일본을 주 시장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펜타마이크로는 중국 시장만을 놓고 보면 후발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